

## 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·퇴근 시간대 혼잡도 30% 감소 추진

- (서울) 4호선(3편성)·7호선(1편성)·9호선(4편성) 최고 혼잡도 150%로 감소('27년~)
- (김포) '26년까지 5편성 증차 지원하여 최고 혼잡도 150%로 감소

- 정부가 출·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.
 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, 김포시에 46억원,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·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.
- 이에 따라,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'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('24~'26년)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.
  -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(오전 7시 30분~ 8시 30분)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.
    - 김포시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('24.6~9 순차적 투입)과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,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% 증가\*한다.
    - \* 현재('24.4) 오전 7시 30분~ 8시 30분 간 구래역→김포공항역 기준 21편성이 운행 중이나, 차량 증편이 완료된 '26년 말에는 30편성 운행 가능
  - '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·퇴근길 최고 혼잡도\*를 현재 199%(심각)에서 150%(보통)로, 최대 혼잡시간(오전7시30분~ 8시30분)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%(혼잡)에서 130%(보통)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.
  - \* 혼잡도: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상 열차 내 혼잡도(실제 탑승인원/탑승 기준인원)는 190% 이상인 경우 '심각', 170~190%는 '혼잡', 150~170%는 '주의' 150% 이하는 '보통'

□ 또한,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~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(3편성)·7호선(1편성)·9호선(4편성)에 총 8편성을 '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('24~'27년) 국비가 한시 지원된다.

○ 현재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9호선의 경우, '27년까지 4편성을 추가 도입한다. 184%(혼잡)에 이르는 최고 혼잡도가 159%(주의)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4호선과 7호선 역시 '27년까지 증차가 완료될 경우 최고 혼잡도를 150% 미만\*으로 낮출 수 있다. 그 결과, 출·퇴근시간 혼잡한 열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.

\* (4호선) 150→148%, (7호선) 157→147%

※ 서울시는 23년 4월부터 출·퇴근시간(07~09시, 18~20시) 예비 열차를 활용한 증회 운행 중 (2·3·5호선 각 4회, 4호선 6회, 7호선 2회)이며, 최근 9호선에 신규 8편성 투입('23.12~'24.3)

□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”라며,

○ “도시철도는 국민들이 출·퇴근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,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박영석 (044-201-4825)
<협조>	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	책임자	과 장	안형준 (02-2133-4331)
		담당자	팀 장	김성균 (02-2133-4333)
<협조>	김포시청 철도과	책임자	과 장	서승수 (031-980-5520)
		담당자	팀 장	하대용 (031-980-551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